



발탁 가능성

위한 선봉장으로 발탁 됐다. 왕 서기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2003년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사태 때 보여줬던 ‘소방대장’ ‘폭탄 제거 전문가’ 같은 문제 해결 능력과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다. ‘포청천’이라 불릴 만큼 반부패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이 부패 척결을 당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고, 경제정책의 향배를 둘러싸고 리커창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왕치산이 나이 불문율을 깨고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후닝이 상무위원으로 선발될 것인가다. 행정과 지방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차기 상무위원에 선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시진핑 등 3대에 걸쳐 중용되고 있고 중국 개혁·개방 이끈 기반인 ‘발전과 안정, 개혁’의 3자 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등 핵심 정책 브레인 역할로만 중앙정치국 위원까지 오른 인물이다. 지도 이념으로 당헌에 이미 추가 삽입된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과 과학발전관, 그리고 신형대국관계 등의 주요 이론 수립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최고지도부의 ‘책사’로서 영향력을 드러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내외 정책이 갈수록 ‘세계화’ ‘분권화’ ‘전문화’ ‘다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왕후닝 같은 책사형 관료가 상무위원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18대 상무위원 7명 모두 대학 이상의 학력이고 시진핑과 리커창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등 고학력화와 전문화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20차당 대회때 새 총서기 뽑을 듯

셋째, 차차기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1960년대생 중에서 누가 상무위원에 선발될 것인가다. 중국은 82년

개정 헌법 외에 2002년 중국 공산당은 지도간부의 임용 및 선발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당과 정부의 직위에서 10년 이상을 재임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제20차 당 대회 때 새로운 총서기가 선발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한편 복수의 ‘정치세대’를 함께 발탁하는 인적 구성을 통해 정책 결정과 집행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제19차 당 대회 때 새로 상무위원으로 임성할 60년대생 중에서 선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63년생인 쑨칭차이와 후춘화 2명 모두 상무위원에 선발될지, 2명 중 1명만 선발될지, 혹은 제17차 당 대회 때 시진핑과 리커창이 중앙정치국 위원을 거치지 않고 상무위원에 발탁된 사례처럼 다른 60년대생이 선발될지 주목된다.

넷째, 기존의 관례를 깨고 군인과 여성이 상무위원으로 선발될 것인가다. 특히 세계적으로 여성 지도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성 상무위원이 선발된다면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제19차 당 대회에서 상무위원에 선발될 가능성이 제일 큰 인사는 쑨춘란(孫春蘭) 중앙통전부장이다.

다섯째 관전 포인트는 중국 정치 주요 파벌 간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다. 중국 엘리트 정치를 이해하는 데 파벌 구도는 중요한 변수다. 현재 중국 정치계에서 유력한 파벌은 ‘환파이(團派)’ ‘태자당(太子黨)’, 그리고 ‘상하이방(上海幫)’으로 이들은 정책 정향의 차이에 의해 경쟁과 연합을 통해 정치계 내에 세력을 확보하고 구체적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8대 상무위원회 파벌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태자당과 범상하이방이 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국은 ‘환파이’ 계열 인사가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19대 때 파벌 간의 세력균형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으로만 대응한다. 따라서 대중이 강력한 권위적 정부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점점 더 참여하려 할 때 일당 지배 체제가 계속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시진핑의 중국 정부는 서구 민주주의 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몇 년 안에 민주주의식 다당제 모델로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같은 중앙집중화된 모델이 영구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으리라는 점이다. 공산당이 가장 오래 국가 권력을 잡았던 사례는 74년간 일당 체제를 유지했던 소련 공산당이었

다. 중국 공산당은 2023년이면 집권 74년째를 맞는다. 이후까지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면 새로운 역사를 쓰겠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국의 정치체제에도 좀 더 다원적이고 참여적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로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껏 중국이 ‘중국적 특징을 가진 사회주의’를 추구해온 것처럼 ‘중국적 특징을 가진 민주주의’ 같은 방향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 가능한 일인가 묻는다면 현재 상태로는 딱히 무엇이라 답할 수 없다. 중국의 정치적 미래는 누구도 짐치기 힘든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공산당 엘리트 지도자는 어떻게 육성되나

20년 이상, 2개 부문 이상 순환 보직 거치며 철저 검증

자오후지(趙虎吉)
전 중국 공산당 당교 교수(여시재 석좌 연구원)
이윤정 여시재 연구원

중국은 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으로서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와 행정 등 국가의 모든 조직을 운영하는 ‘당-국가체제’다. 중국 내 공산당원의 숫자는 총 88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중국 인구의 약 6%며 독일 인구를 넘는 숫자다. 중국에서 공산당원이 됐다는 것은 사회 엘리트층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능(賢能) 정치의 전통을 이어받은 중국 공산당은 사회의 모든 엘리트층을 흡수해 선발하고 이들을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처럼 권력을 집중해 당-국가체제를 형성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엘리트 선발 및 교육시스템을 통해 통일된 이념 체계를 확립하고 이들을 국가 행정과 군, 사회의 모든 분야에 침투시키는 과정 및 엄격한 기율관리로 국가를 통합해 왔다. 따라서 8800만 명의 당원 중에서 당 권력의 정점인 총서기 1인에 이르기까지의 엘리트 선발·관리·교육과정에 공산당 100년 역사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8800만 공산당원 중 일단 예비간부 약 4만7000여 명이 선발되고 5년마다 이 인력 풀이 정비된다. 예비간부란 중앙정부의 처장-국장-장관과 지방정부의 성(省)-시(市)-현(縣)-향(鄉)의 장과 같은 간부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 가운데 장차관급 예비 간부는 약 600명이며 여기서 공산당 대표회의의 투표로 당 중앙위원 376명이 가려진다. 이들 중앙위원에 전국의 모든 장관, 성장, 성 당서기, 차관 등이 전부 포함돼 있다.

다음 단계로 최상위 권력기구인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발되는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과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다. 이들은 권력의 정점에 근접한 사람들이다. 상무위원 중 1명이 총서기가 되고 총서기가 국가주석을 겸함으로써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 엘리트 선발 과정의 핵심은 기존 간부진의 투표를 통한 추천과 면담을 통한 위임제, 그리고 후보자를 선정한 뒤 무기명 투표를 거치는 선임제 과정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으로 명

중국 공산당 엘리트 선발 방식 및 과정

총서기 시진핑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

중앙정치국 25명

중앙위원회 376명

예비간부 4만7000명

성부급(45~50세) : 1000명

청국급(40~45세) : 6000명

현처급(35~40세) : 4만 명

공산당 당원 8800만 명

문화된 제도가 아니다. 중앙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과 상임위원 선발에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아직 많이 있다.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나마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이래 위원 선발 과정에서 관례 혹은 예측할 만한 요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치시스템은 현재 점진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급 지도자들의 선발 과정에서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 최소 20년 이상의 다양한 업무를 통한 양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과 2개 이상 부문의 보직 순환 경험을 쌓게 한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 간부 성장 패턴을 보면 30대에 지방의 현장 처장급으로 시작해 40대 초반이 돼서야 국장급 간부, 50대 초반에 장관급 간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 경력을 쌓게 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다. 예비간부 명단 중 성장급과 장관급은 반드시 45세 이하를 포함시키고 시장급은 35세 이하, 현장급은 30대 이하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연령별 조화를 꾀하고 차세대 간부들을 육성한다. 중국에서는 이를 ‘노인·중장년·청년의 3결합’이라고 한다. 계단식 단계를 거치면서 젊은이들을 육성 발굴하고 원로와 젊은 세대를 공존시키는 것이다.

또한 간부 성장 과정에서 중앙 당정의 주요 업무나 대도시, 대형 국유 기업 등을 맡은 다음에는 지방의 빈곤 지역 등 기초조직에 파견하는 식으로 중앙과 지방을 반드시 번갈아 거치게 하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훈련시킨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당 전국 대표대

회에서 최고위급 엘리트인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차기 지도부의 윤곽과 국가 운영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때는 경제 발전을 앞세운 시기로 이공계 출신 엘리트가 강조됐다. 내년에 열리는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인문사회과학, 금융 분야 및 기업 출신 인재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 ‘엘리트 정치’의 또 다른 핵심은 철저한 엘리트 교육이다. 총 3000여 개의 중앙당교와 지방당교가 있어 엘리트들을 수시로 교육시킨다. 2002년 후진타오 주석 때 시작된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집단학습’은 거의 매달 열린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적 전통과 연결된다. 중국에서 황제는 훈련을 통해 완성되는 인간으로 여겨 황태자가 정해지면 공부를 시켰다. 황제들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문학자이자 철학자였다.

교육의 핵심은 이념의 통합, 즉 당성 교육으로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등 역대 중국 공산당 정책과 노선을 교육하는 한편, 세계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5개 당대(五當代) 교육, 즉 당대 세계의 경제, 과학기술, 법제, 군사, 세계사조를 가르친다. 교육의 기초는 물론 당의 국가 운영 방침을 따르지만 단순한 상명하복 식과는 거리가 멀다. 당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놓고 당교 교수와 당 간부의 끊임없는 토론이 벌어진다. 중앙당교 교수진은 누구나 상무위원에게 보고서를 올릴 수도 있다. 토론 과정과 보고서 등을 통해 최고지도자들과의 연로가 열려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교육은 해외 연수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 지식 도입은 4화건설(四化建設)에 도움이 된다”는 덩샤오핑의 1983년 발언 이후 중국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열풍이 일었다. 공무원들은 홍콩은 물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대,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대와 프랑스 국립행정아카데미 등 세계 각지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선출됐다.

[중앙포도]